

버팔로 뉴욕州立大學의 特性과 教育環境

林 鳳 旭

(大田大 經濟學科)

1. 머리말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은 뉴욕주립대학 시스템 아래 운영되고 있다. 학교 이름이 SUNY로 시작되는 대학이 Buffalo, Albany, Binghamton, Stony Brook 등 네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버팔로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SUNYAB)이 가장 큰 규모이다.

SUNYAB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뉴욕주 버팔로市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市와 같은 州에 속해 있기는 하나, 뉴욕市로부터 북서쪽으로 420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

뉴욕주는 오랜 역사와 뉴욕市의 빈민들 때문인지 미국의 다른 주에 비해서 사회 보장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와 무관하지 않은 듯 다른 주립대학들과 비교해 볼 때 SUNYAB의 학비는 상당히 저렴하다. 특히 최근에는 주 전체로 教育 投資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SUNYAB를 大學院 中心의 研究 위주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자기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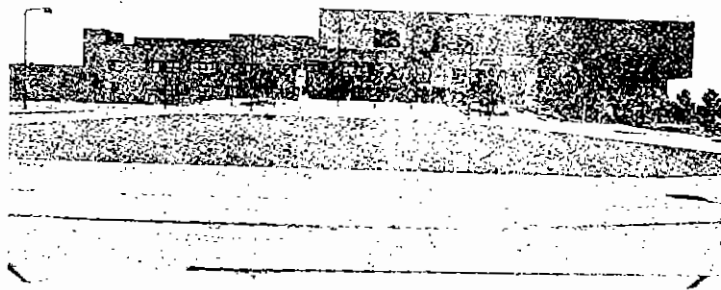
SUNYAB의 개관과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주변 教育 環境에 대해서 알아 보자.

2. SUNYAB의 歷史와 現況

SUNYAB는 지금으로부터 약 143년 전인 1846년 6명의 교수진을 가진 의과대학으로서 University of Buffalo(UB)라는 이름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UB는 약학대학, 법과대학, 치과대학 등을 계속 설립하였고, 1962년에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과 병합하여 현재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가 되었다.

이후 SUNYAB는 제2캠퍼스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는 2개의 대규모 캠퍼스에 15개 단과대학, 4,000명 이상의 교수진을 확보한 대학으로 발전하여 SUNY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크고 종합적인 대학이 되었으며 미국 전체에서도 명문 주립대학으로 위치하고 있다.

SUNYAB에는 전 세계 각국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캐나다, 서독, 소련 등 여러 나라의 教育 기관과 學問的 交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특히 中國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 캠퍼스에 중국 유학생이 상당히 많다. 또한 학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학생들을 SUNYAB 경영학과의 특수 프로그램에 단체로 유학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 이리湖 근처에 위치한 버팔로 뉴욕州立大學은 州 전체의 教育投資 열기에 힘입어 大學院 중심 研究 위주 대학으로의 變身을 꾀하고 있다.

개설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헨리 키신저 박사가 초청되어 연설을 하는 등 학교 전체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하다.

3. SUNYAB의 Millard Fillmore College(MFC)

MFC는 SUNYAB의 모태가 된 UB의 초대 총장이며, 후일 미국의 제13대 대통령이 되었던 Millard Fillmore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본떠서 설립한 야간 대학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운영 방법은 특이하다. 비록 칼리지이지만, 여러 전공 학과를 개설해 놓고 있으며 석사과정까지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학생의 대부분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얻거나 또는 승진에 필요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식으로 입학되지 않은 SUNYAB의 청강생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MFC에 소속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SUNYAB의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하려고 하면 우선 MFC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정식 입학 시기를 놓치거나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요건이 미

비되었을 때는 우선 MFC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는 자신이 주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비록 야간 대학인 MFC의 소속이지만, 주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추후 정식으로 입학이 되면 지금까지 수강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MFC 운영의 또 다른 특징은 교수진의 대부분이 SUNYAB 주간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들이며 그밖에 소수의 외부 강사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희망할 경우, 심사를 하여 MFC 해당 학과의 강의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하여금 미래에 교직으로 진출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강의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받은 대학원생에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내에서 대학원생으로서의 일자리는 주로 교수의 연구나 강의를 도와줌으로써 학교로부터 學費 免除 및 생활비를 보조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교수의 조교(assistant)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MFC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특정 교수의 조교가 아닌 독립된 강사(instructor)의 자격을 부여 받기 때문에 독립성과 함께 자신 나름대로

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4. Early Childhood Research Center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대학의 아동교육학과 부설 유아 연구 센터 정도로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다. 특징적인 것은 바로 강의실 옆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온갖 장난감과 학습 자료 및 편의 시설을 구비한 학습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습실의 문단 열면 각종 놀이 시설이 완비된 실외 어린이 놀이터와 연결된다. 그리고 강사들은 전부 SUNYAB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교과과정의 연장으로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특정한 지식을 주입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끼리 서로 협조하여 잘 놀 수 있게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주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다투지 않고 공동의 시설물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흔히 생각하기 쉬운 국어나 산수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강사가 주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자체가 대학내 강의실 옆에 함께 위치하기 때문에 학사 일정은 대학의 그것과 똑같다. 대학이 방학이면 이 연구 센터도 방학이다. 다만 한 가지 일정이 다른 점이 있다면, 워낙降雪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폭설이 내릴 경우 대학생들에게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대학은 정상 운영하지만 유아원생들에게는 임시 휴일이 된다는 점이다.

한편, 이 유아원에 등록된 원생들은 주로 SUNYAB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이나 대학원생들의 자녀가 대부분이다. 유아원의 수준이 뛰어나서 외부인의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아원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의 입학 경쟁은 치열하다. 그렇다고 어떤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 선착순에 의해 결정되지만, 나이에 따라 다른 학급이 구성되며 학급당 원아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적어도 1년 이전에 신청해 놓아야만 원하는 학급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특이한 시설물 중의 하나는 관찰실(observation room)이다. 이곳은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일반 학생이나 연구원의 연구를 위해서 원아들에게는 목격당하지 않으면서 원아들의 학습이나 놀이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특수 유리 및 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곳은 연구 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순한 유아원 수준을 넘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에 귀중한 자료 제공처가 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아원에 등록된 어린이들의 부모가 대부분 SUNYAB의 교직원이나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아가 아침 반인 경우 부모와 함께 등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 관찰실을 1주일에 이틀 정도 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학부형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다른 어린이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 소극적인가 또는 적극적인가 등등을 지켜 봄으로써 자녀 교육에 좋은 참고 자료를 얻게 된다. 자신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이 알 수 없음은 물론이다.

5. 캠퍼스와 教育施設

SUNYAB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큰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메인 스트리트 캠퍼스로 UB가 터전을 잡았던 역사적인 지역으로서 각종 건물이나 분위기가 140여년의 역사를 말해주듯 고색창연하다. 이 캠퍼스는 최근 재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버팔로 시내와 지하철로 연결하였으며 의대, 치대 등 건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센터로 전문화되었다.

반면에 그곳으로부터 3마일 정도 떨어진 교외의 Amherst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는 약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공사로 현재 약 85%가 완성된 상태이다. 이 캠퍼스는 교내에 호수 및 각종 자연 경관을 갖추면서도 미래파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강의실, 사무실, 라운지, 식당, 도서관을 모두 조화 있게 결합시켜 전체로 보면 하

나의 건물처럼 보인다. 특히 동쪽 끝에서 서쪽 끝 1마일의 거리에 위치한 건물은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다른 건물로의 이동시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내부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같은 건축 양식으로 겨울의 혹한이나 여름의 혹서에 대비하였으며, 1년 내내 건물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다.

새로운 캠퍼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 Ellicott Creek 을 따라 초원이 펼쳐져 있으며 그곳에는 봄, 여름에 걸쳐 야생화가 만발하여 Ellicott Residence Hall Complex(기숙사 건물)는 마치 공원 위에 세워져 있는 듯하다.

대학 도서관은 북미의 주요한 연구 도서관의 하나로서 7개의 주요 도서관 및 4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230만 권 이상의 장서와 약 23,000종의 정기 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Lockwood Memorial Library는 100만 권 이상의 제본된 장서를 소장하여 인문·사회과학, 예술, 경영 및 교육 분야의 연구에 밀바탕이 되고 있으며 그외에 연방 정부, 뉴욕주 그리고 캐나다에 관한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학부생 전용 도서관인 Oscar A. Silverman Undergraduate Library 와 레코드, 테이프, 75,000종 이상의 모음집 등을 소장한 음악 도서관도 주목할 만하다.

Recreation and Athletics Complex(RAC)는 세계적인 건강, 휴식 및 교육용 체육관으로서 라켓볼 코트, 배구 및 야구 시설, 실내 조깅 트랙 등을 갖추고 있다.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은 물론 3단 체육관, 육체미 체육관, 레슬링 운동장, 체조 및 댄스 스튜디오, 스쿼시 코트, 사우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RAC 바로 옆에는 야구장, 필드 하키, 축구장, 농구장, 핸드볼, 테니스 코트, 활궁장, 다목적 운동장 등이 실외에 위치하고 있다.

6. 버팔로地域

버팔로시가 속해 있는 서부 뉴욕은 문화, 교육 환경, 의료 시설, 주택,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에서 열네번째로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버팔로시를 생각할 때면 상당히 인상적인 것들이 많다.

우선 뉴욕주에서 두번째로 큰 메트로 폴리탄 지역으로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으며 인근의 전원과 함께 都市風과 田園風의 文化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특히 SUNYAB의 메인 스트리트 캠퍼스는 버팔로 시내 중심지에 상당히 가까이 있으며, 엠허스트 캠퍼스는 전원 지역과 보다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욱 환경이 돋보인다.

버팔로시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이다. 특히 엠허스트 캠퍼스 외곽으로 州間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가 뻗어 있는데 캠퍼스에서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30분 정도 달리면 옆으로 아름다운 강이 펼쳐지며 멀리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 안개가 보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립 공원(state park)이라는 팻말과 함께 이 폭포에 도달하게 된다. 폭포가 떨어지는 강의 중간 지점이 바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 된다. 그래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간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엔旗가 나부끼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곳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캐나다쪽에서 유치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쪽에서는 국경을 걸쳐서 떨어지는 폭포 전체를 볼 수 없으며 캐나다쪽에서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거의 1년 내내 이 곳은 세계인의 신혼 여행지라는 네온사인과 함께 불야성을 이루며 나이아가라 폭포 축제(Niagara on the lake's shaw festival) 때에는 그 불야성이 절정에 달한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폭포는 이미 얼어버린 강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갖가지 모양의 얼음 조각품들을 만들어 놓으며 이곳의 명물인 눈과 함께 그림같은 靄靄을 이룬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이 폭포를 사시찰할 수 없이 관람하게 되는데 때로는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도 가지지만, 그보다는 외지에서 온 손님을 위한 관광 가이드로서 더욱 많은 발걸음

을 하게 된다. 관광객이 한창일 때는 일부 학생은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들었다.

앞에서 눈을 이곳의 명물이라 지칭했는데, 이곳은 미국 전역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마 五大湖 중의 하나인 이리湖(Lake Erie)와 접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바다와 같은 호수를 옆에 끼고 있어 그 영향으로 지구상의 동일 위도상의 내륙 지역보다는 겨울에 추위가 덜하다.

캐나다와의 국경이 캠퍼스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북미 최대 도시 중의 하나인 토론토가 약 100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면 캐나다의 풍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멋지게 정비된 고속도로를 보면 캐나다의 경제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좀더 욕심을 부리면 방학을 이용하여 약 400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몬트리올에 갈 수 있는데 이곳은 토론토가 속해

있는 온테리오州와는 달리 퀘벡州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도로 표시판부터 붙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이국의 풍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국경 도시인 버팔로의 매력이 아닐까 한다.

7. 맺음말

이상에서 SUNYAB의 歷史, 現況 그리고 몇몇 特徵的인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환경, 주변 환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 비교하여 참고가 되도록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 욕심이 있었으나, 자료 수집에 있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아울러 이 글이 ‘장님이 코끼리 묘사하는’식의 잘못을 범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두려움이다. *